

안디옥교회 (사도행전 11:19-30)

이번주 말씀은 안디옥교회이다. 이 교회는 교회사에 큰 획은 그은 교회이다. 처음으로 선교가 시작된 교회이다. 그리고 평신도 제자들이 세운 교회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아주 복음이 확실한 교회였다.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누구든지 언약으로 살면 인생의 문이 열린다. 이 언약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름도 언약이다.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 이것이 성경의 이름이다. 하나님이 책을 한권 썼는데 그 제목이 언약이라면 그것이 굉장한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언약으로 살기 원하는지 그 소원을 알수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언약으로 살지 않는 종교 인생이 많다는 말도 될 것이다. 우리가 언약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성경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지지난주에 라합 이야기를 보았다. 세상에서는 무시 받는 기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짐승들도 다 죽는데, 자기는 살았다. 그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다. 짐승들도 다 죽여라. 하나님 명령이었다. 자기만 산게 아니라 가문 다 살렸다. 지난 주에는 언약계를 따라가라였다. 그랬더니 요단강을 마른땅으로 건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니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만일 역사책에 불과하다면 단순한 사건 기록일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언약책이다. 언약을 말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가져온 것이다. 너도 라합처럼 언약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도 반드시 라합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메시지이다. 니가 만일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면 너의 인생을 마른땅으로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증거를 보게 되어 있다. 그 응답으로 증인도 되는 것이다. 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의미있는 것은 이것 하나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하신다. 언약의 피를 바른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모든 사단의 나라를 박살내셨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태어난것도 모두 죽었다. 하나님이 어느 집에 어느 짐승이 태어났는지 다 알고 있다는 말이다. 어느 집에 소 열 마리 있다고 하면 어느 소가 먼저 태어났는지 알고 그것을 죽인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그 집에 돼지도 열 마리 있었다면 어느 돼지가 먼저 태어난 줄 알고 죽인 것이다. 그 집에 개 다섯 마리 있었다면 다 아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언제 그렇게 했는가? 언약의 피를 발랐을 때, 이 피를 우리 인생에 매일 바르라. 이것이 근본이고 근본 기도이다. 안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된다. 왜냐면 답이 이것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계속 바르라. 응답이 오든 말든 계속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때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틀림 없다. 그 날 저녁에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성경 전체에서는 말씀 한문장만 있어도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 언약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내 인생에 바르는 것이다. 복음 시대가 되어서 옛날보다 훨씬 쉬워졌다. 말만 하면 된다. 예전에는 양 잡아서 직접 피 발라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1. 복음

안디옥교회의 콘텐츠를 말하면 복음과 전도이다. 스테반의 일로 흠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는데, 그 때부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다.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흠어졌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방인 전도가 시작이 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하나님이 이분들과 함께 있었는가 하면 복음 붙잡고 있었다. 복음 때문에 핍박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몸을 피하고 기회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도 되고 교회도 되게 하신 것이다. 개인의 인생도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 언약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근본은 복음이다. 교회가 만일 다른 것은 하나도 안하고 복음만 정확하게 늘 전달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린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이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회복했을 때에는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다. 역대하 1:15절에는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취급받았다고 하였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였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큰 나라에서 세금을 바쳤다. 히스기야 왕은 진짜 언약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 185,000명이나 끌고. 하루 저녁에 죽어버렸다. 진짜 기적이다. 그리고 왕 하나 혼자 살아갔는데, 그 왕도 두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었다.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이 언약이 회복되었을때에 적군이 쳐들어 와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다. 성경에 몇 번 기록이 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 왔는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나? 그것도 소리 한번 지르고 싸우게 아니고 칼로 서로 찌르고 죽었다. 이것이 언약이라는 메시지 아닌가? 싸울 필요 없다. 자기끼리 싸워 죽는다는 말이다. 니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국민을 모았다. 젖먹는 어린양을 번제로 드리고 있는데, 왜 하필 그 때 블레셋이 쳐들어 오는가?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다 죽여버렸다. 굉장한 메시지이다. 이것이 내 언약이니까 니가 매일 언약으로 잡으라는 것이다. 이런 기적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꼭 있다.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살아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스토리를 정리해서 기록하면 성경과 버금가는 기록이 될만큼 많이 있다. 결론은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기적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다.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요약해서 이야기했다.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천국 열쇠를 줄것이니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 보좌의 권세를 누리라는 말이다. 교회만 이런가? 개인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내 안에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으로 살면 누구든지 인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늘 듣다보면 예사가 되어 버려서 문제이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면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기 바란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면 그들이 복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갈보리의 일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을 저주에서 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복음 간단하다. 삼십이 복음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은 인간을 무조건 저주에서 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피는 뱀의 머리 박살내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비밀, 복음을 알아야 한다. 삼십을 예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수 있다. 안 그렇다.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삼십의 축복을 주지 않았으면 인간에게 희망 없다. 이 복음 오늘부터 확실하게 회복되기 바란다. 다른거 필요 없다. 이거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인생이 저주에서 해방이야. 안 믿어져도 여기서 버려라. 이 말씀 잡고.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사단이 못 믿게 한다. 나는 믿고 싶다. 그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날 출애굽 저녁에 뱀의 머리 박살 낸 것이다. 이 피를 언약으로 잡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누리고 24시 된다는 것이다. 간단하다. 공부 한번도 못한 사람도, 글자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것이 복음이다. 너무 간단하다. 문제는 뭐냐면 믿는다는 것이다. 잘 안믿어 지기 때

문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고백이다. 안 믿어져도 계속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날 눈이 열리고 믿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그것도 양에 잘 안차면 연필 부러지도록 쓰는 것이다. 여하튼, 이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무조건 저주에서 해방이라는 것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나? 이것 가지고 내 문제하고 전쟁 붙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 답이라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 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이 종교이다. 간단하다. 복음 회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래저래 말 많은 것은 복음이 회복 안되서 그렇다. 복음 회복되면 인생 간단해져버린다. 복음 없으면 신자는 무조건 인생 복잡해진다. 말 많고, 계속 질문이 나온다. 언약이 나오고 승리 정복이 나와야 하는데. 복음 회복되기를 축복한다.

2. 전도

안디옥 교회는 진짜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은 교회이다. 선교가 지구 생기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도바울의 선교운동에 플랫폼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것은 이 교회가 평신도 제자, 중직자들에게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바울이나 그 당시의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에 의해 세워진 것 아니다.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출발은 중직자 스테반의 순교였다. 그 현장의 출발은 20절에 나온다. 거기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나온다. 이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21절에 대 역사가 일어났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종종 초대교회는 평신도 운동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다. 복음 가진 평신도,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대적인 복음을 가졌다. 진짜 교회사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이것 진짜 시대적인 것이다. 아무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적이 없다. 아주 현장적이다.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터치를 하고 있다. 대부분 전도자들이 보면 예수민자, 하나님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근본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의 누가 인간에게는 근본문제 세가지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는가? 이 근본 문제 세가지는 인간은 절대 손댈수 없는 것이다. 이미 일어나버렸다. 누가 되돌아와서 다시 시작할수도 없다. 여기에 대하여 그냥 예수를 믿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것의 답이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늘 들어서 예사로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리스도의 삼성을 가지고 근본문제 세가지에 매치를 시킨 신학자가 없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다. 더 더욱 근본 문제를 불신자 상태 6가지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램넛들도 잘 알아야 한다. 이것 진짜 언약 잡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생의 답이다. 이것을 잡으라. 답 난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잡으라. 그러면 인생에 답 난다. 누구보고 원망할 필요 없다. 내가 안 잡아서 그렇다. 이거 잡으면 다 죽어도 나는 사는데. 짐승도 싹 다 죽었다. 그래도 나는 사는 것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다 산다. 노아도 마찬가지이다. 방주안에 들어온 것은 짐승도 다 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잡으라. 언약으로. 답이다. 이것이 답이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라합에게 맞춰서 말해보자. 너희 중에 창녀가 있나? 언약을 잡아라. 그러면 거기서 완전히 라합처럼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이다. 잡으라. 이거 안 잡으면 답 내놓고 지혼자서 말이 많다. 그정도로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눈 열려야 한다. 시대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전도해야 한다.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지 않다. 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간도 내고 현금도 하고. 해야 한다.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잘 안살아 난다. 헌신하면 힘이 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기도해야 겠다, 집이 멀어도 소용없다. 와서 기도한다. 그런데 하루는 감기 몸살이 나서 죽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를 악물고 와서 기도하면 힘이 난다. 하나님 오늘

도 아픈데 쉬겠습니다 하면 힘이 없다. 그게 헌신의 자세이다. 그리고 와서 기도한다고 죽는가? 안 죽는다.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언약만 잡고 방안에 있으면 안된다.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제시 해봐야 한다. 원하는 자가 있으면 설명하고 영접시켜야 한다. 기존 신자를 만나면 너 그리스도 야냐고 말해야 한다. 나는 어느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것에 속으면 안된다. 알겠다. 그러나 너 그리스도 야냐고 물어봐야 한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너에게 뭐냐고 물어봐야 한다. 대답이 신통치 않으면 복음을 심어줘야 한다. 왜 우리가 미국과 남미에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려고 하는가? 목사님들이 최고로 급한 시대가 되었다. 목사님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를 않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증거 없다. 증거 없으니까 메시지하고 예배드릴 때 증인으로 못 서는 것이다. 이것이면 된다고 말을 해야 증인 아닌가? 그리스도는 저주에서 해방이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한다. 자기 인생이 저주에서 나와 봐야 이 말을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보혈은 어찌고 신학적으로 하는 것은 전부 선생님이다. 전도자는 그런게 아니다. 안디옥교회를 세운 평신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십자가의 보혈은 진짜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믿으면 부활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확실히 알아 지겠는가? 언약으로 잡고 내 문제에 이 언약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정도 아니고 언약으로 도전해서 박살을 내 주세요. 안디옥교회는 그 컨텐츠가 복음과 전도였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있는 게 교회중에 대표적인 교회이다. 성경에 교회가 많은데, 그 중에도 대표적인 교회, 플랫폼 교회이다.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뿐만 아니라 개인도 컨텐츠가 복음과 전도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무기이다. 사단이 계속 쳐들어 온다. 박살 내야 할 것이다. 근본 무기가 복음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영적 무기이다. 실질적인 무기, 전도이다. 이 두 개가 무기이다. 현장 무기, 전도이다. 그냥 전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언약으로 잡으라. 이것으로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뱀의 머리를 썬다. 이것이 전도의 정의이다. 말로만 깨는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깨는게 아니라 실제로 깨버린다는 것이다. 여하튼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전도이다. 그러면 내 인생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이다. 맨날 비는 인생 되면 안된다. 니가 빌라고 십자가에 죽은게 아닌 것이다. 응답 정도 아니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인생 되기 원하면 복음과 전도를 무기로 잡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는 자는 무조건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복음을 깊이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도에게까지 가야 한다. 그냥 누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누리는 사람은 전도까지 가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된게 없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영적으로 죽인다면 그건 안된다. 그건 내가 잘못된것도 없는데 내가 가서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그러면 이야기 할 것이다. 니 진짜 고맙다. 어찌 내 마음을 알았냐고 하실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것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불신자 애굽나라에 소 몇 마리중에 먼저 태어난것도 아시는 분인데, 다 아신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히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나를 죽이고 내가 헌신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이야기 한다. 이것 먹으라. 우리는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그 사람은 고마워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이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소리에 잡혀서 전도문 다 막히면 안된다. 우리는 미국과 남미를 살리는 안디옥교회가 되어야 한다. 플랫폼, 컨텐츠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 한다. 복음,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있어야 한다. 사도 행전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도전략을 딱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전도다. 대부분 성도는 영접 정도만 알고 있다. 밖에 나가면 영접도 잘 모른다. 그러나 영접 정도가 아니다. 사도바울같이 제자를 움직일수 있는 조직을 가진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는다. 그 깊은 복음과 더 깊은 전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